

지역본부 청렴교육 및 현장방문



감사(감사 김형원)는 지난 연말부터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을 시작으로 충청·영남·호남·수도권·강원본부, 시설장비 사무소, 김포철도사업단을 순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현장방문 및 청렴교육에서는 검찰수사, 국가청렴도 조사 등에 따른 공단의 청렴성에 대한 대외 부정적 이미지를 쇠신하기 위해 청렴문화 지혜요인에 대한 현업직원의 소리 청취 및 지역본부 청렴도 향상방안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토론 등으로 구성돼 공단의 청렴 조직문화 내재화 방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감사는 “검찰수사 등으로 인해 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우려되므로 위기위식을 가지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실추된 공단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검찰수사에 따른 신뢰회복을 위해 건강한 조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청렴교육 외에도 철도사업 및 재산관리 등 분야별, 유형별 감사지적사례 현황을 공유하고 철도 사업분야에 대한 주요 내·외부감사 지적사례를 소개하며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방향을 공유하는 등 철도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리스크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실 박원웅 기자〉

평성고가 하부 통과구간 특수공법 벤치마킹 현장견학

- 철도의 장점을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공유하는 역할 기대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지난 12일 특수공법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기술정보 공유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수도권고속철도 ‘평성고가 하부 통과구간 특수공법’ 시공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 및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했다.

평성고가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경부고속철도 교량으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가 경부고속철도와 합류하기 위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기 전 마지막 지하구간으로 평성1고가 하부를 통과 하게 되는 12개 공구 중 마지막 공구인 9공구(GS건설)에 위치해 있다.

평성1고가 하부 통과구간은 기존의 경부고속철도가 고속으로 운행중인 교량기초 바로 아래를 수도권 고속철도가 통과함에 따라 교각 지지 거더를 이용해 하중을 전이한 후 기초 파일을 절단, 기초를 지상으로 띄운 상태로 아래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치의 시공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시공이 요구되고 있다.

본부 직원 20명이 이번 견학에 참여했으며 현장상황실에서 감리단장으로부터 약 20분간의 설명과 동영상 시청하고 예정보다 30분 넘게 질문이 계속되어 참석자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공법 시공현장에서는 지지거더를 통한 하중전이 개념, 유압식 잭 상태, 기초파일 절단에 따른 계층관리와 공사 중 경부고속열차 안전 운행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지고 시공의 어려움 및 선진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견학 참석자들은 수도권고속철도 7공구에 설치된 안전체험장도 방문해 안전체험을 수료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현장의 작업자들 위주로 안전체험 교육을 받았으나 직원들이 직접 체험을 해 봄으로써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응급처치 요령 등 현장관리 실무자로서의 안전분야 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도권본부 서문원 기자〉

수도권본부 안전 및 청렴도 향상 위한 표어 공모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재해율 목표를 달성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자 지난달 22일부터 계약자 및 본부 직원이 참가하는 ‘안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표어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에서는 철도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91건의 표어가 응모(계약자 56개, 본부 직원 135개) 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위해 본부 전직원이 참여하는 1차 심사를 통해 안전분야 10개, 청렴분야 10개를 선정하고 본부장 및 각 처장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거쳐 각 분야 대상 1개와 우수상 2개씩 총 6개를 선정했다.

안전분야 대상은 건설기술처 원지영 사원이 응모한 ‘지키세요 안전의식 버리세요 설마의식’이, 청렴분야 대상은 건설기술처 박병목 과장이 응모한 ‘참여하자 청렴의식, 이뤄내자 청렴조직’이 선정됐다.

당선자는 지난 3일 열린마당에서 시상식을 가졌으며 당선작은 본부와 현장에 게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수도권본부 서문원 기자〉

• 안전분야 당선작

구분	표어 내용
대 상	지키세요 안전의식 버리세요 설마의식
우수상	안전 앞에 너나없고 사고후에 행복없다
우수상	눈으로 안전확인 손으로 품질확보

• 청렴분야 당선작

구분	표어 내용
대 상	참여하자 청렴실천, 이뤄내자 청렴조직
우수상	나 하나의 청렴결백 모아지면 으뜸공단
우수상	몸에 배인 청렴의식 청렴실천 시작이다

영남본부, ‘영덕~삼척간 착수보고회’ 개최

- 영덕~삼척 구간 11개 공구 착공에 따른 착수보고회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 포항사무소는 지난달 29일 본부장 주관하에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 11개 전공구 착공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2단계 영덕~삼척 구간은 작년 하반기 보완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시작해 지난 1월까지 11개 공구 모두 착공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노반공사 11개 공구 올해 예산 2,890억원 집행에 착수 전부터 우선시공개소 현황파악, 착공 후 우선시공을 위한 용지 매수구간 선정 및 워크샵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착공 초기부터 원활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영덕~삼척간 착공을 통해 영남본부 포항상설PM부는 동해선 포항~삼척 17개공구,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를 관리하는 명실상부 공단의 동해선 담당 대표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지런히 초기사업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업무에 임하고 있다.

〈영남본부 최영환 기자〉